



계란생산량 · 생산비 모두 증가했지만 채란농가 소득 ‘제자리 걸음’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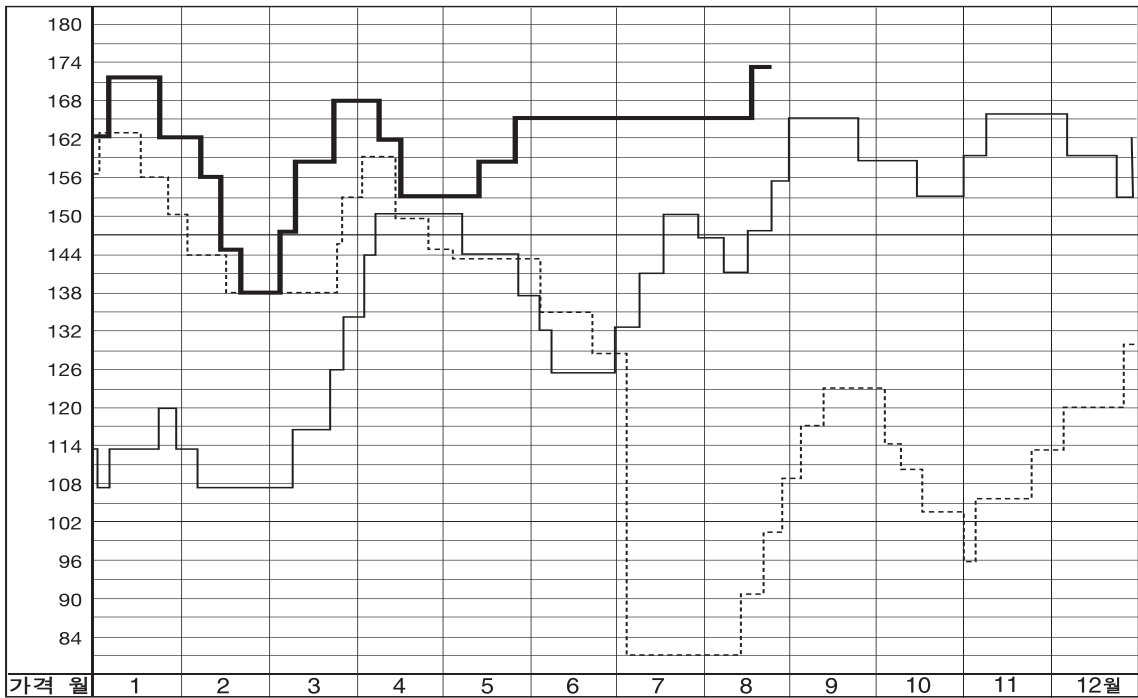
계란 할인행사가 진행되면서 주요 계란소비가 이루어지는 수도권외의 경우 유통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계군의 사육수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로 실제 산지 할인거래폭은 크게 늘어나 생산비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계도태가 전년대비 증가해 계란생산량이 어느 정도 조절되기를 기대하였으나, 도태로 인한 공백을 신계군이 채우고 있어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명절 대비 생산기간을 연장하는 노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산지 계란유통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해 연중 난가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병아리 입추수는 줄어듦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화장에서 자체적으로 종란입란을 조절하고 있음에도 매일 300만수를 넘어서는 병아리가 입식되고 있어 지난해 난가 호황과 더불어 산란계 사육규모가 매우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분석**

지난 7월 산란중계 입식마리수는 52,500수로 전월(48,500수)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79,500수)대비 34.8% 감소하였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4,258천수로 전월(3,273천수)대비 30.1%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3,453천수)대비 23.3% 증가 하였다. 6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28,692톤으로 전월(29,716톤)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9,182톤)대비 1.7% 감소하였다. 산란사료는 163,820톤으로 전월(175,566톤)대비 6.7%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150,955톤)대비 8.5% 증가하였다. 6월 산란중계사료는 4,905톤으로 전월(5,499톤)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230톤)대비 6.2% 감소하였다. 한편 6월 산란노계 도태수수는 2,069천수로 전월(2,293천수)대비 9.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3,312천수)대비 37.5% 증가하였다. 올해 2/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총마리수는 6,285만수로 전분기(6,457만수)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육수수는 4,734만수로 전분기(4,891만수)대비 3.2% 감소하였으며, 3~6개월 병아리 사육수수는 678만수로 전분기(690만수)대비 1.7% 감소하였으며, 3개월미만 사육수수는 873만수로 전분기(876만수)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8월중 · 하순까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기간으로 피서객의 증가로 축산물 소비가 계란보다는 삼겹살 등의 육류에 집중되는 때이다. 하지만 개학 후 단체급식 시작과 평년보다 빠른 추석 명절로 인해 거래흐름은 차츰 강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계군 입식수수가 늘면서 계란생산 잠재력은 전년대비 상당히 높고 폭염 등의 피해가 예년보다 훨씬 감소하여 공급량 과잉으로 난가는 자칫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계란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형할인마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조기도태에 힘쓰고 있어 빠른 감축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시기로 보인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2-- 2013- 2014-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3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4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5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6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8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9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10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11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12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계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